

# 무상급식 '투표율 전쟁' 시작됐다

## 투표 D-7 ...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與 "참여" 野 "불참" 거리 홍보 총력

서울행정법원이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주민투표 지원을 본격화한 반면 민주당은 "유감스럽다"며 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사립귀정"이라며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동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가두홍보에 나서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곧 거리유세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합법한 범위 내에서 거리유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2대의 유세차량을 강남·북에 각각 투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동원해 투표를 독려했다. 현역의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중앙당의 고공 지원보다는 당협별 '밀바다' 조직력에서 성과를 갈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다. 트위터 등 디지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민주 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층 투표 불참"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지층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 불참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만큼 향후 성과는 '부동층 공략'에 달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지난 12일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투표 불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일주일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민주당은 최종 투표율을 약 16.8%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은 17일부터 무가치에 전면공고를 싣고 시민들에게 300만 부의 홍보물 나눠주는 등 투표 불참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12대의 유세차량을 투입해 서울 시내 전역을 누비고, 직능단체나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일대일 설득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를 3일 간격으로 단축해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공생발전' 한나라 두 목소리

## 홍준표 대표 "온정 자본주의 확대" 정두언 의원 "공정사회는 중 췌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언급하자 한나라당이 친서민 행보에도 가속도를 불었다.

홍준표 대표는 16일 "공생발전은 신자유주의에다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온정적 자본주의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그 취지에 정적이 구체화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라며 "내가 서민정책 강화를 계속 들고 나왔는데, 공생발전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당이 새 지도부로 바뀌면서 추구했던 것과

방향이 같아 환영할만하다"며 "구체적 시책은 8월 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주거안정문제와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내주부터는 전국 10개 권역에서 자신이 구성한 권역별 지역발전특위와 최고위원 간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을 돌며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 화두에 대해 "언론의 지적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정확히는 '술선수법'이라며 '장제스(蔣介石)는 부패적결을 선언하며 며느리부터 처단했다. 그러자 모든 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술선수법'의 중요성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사회'를 거론하며 "민간인 사할 사건이 터졌을 때 총리실 담당자만 처벌하고 누구도 심부름하던 담당 행정관은 모처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걸로 공정사회는 중 췌다"고 주장했다.



불붙은 홍보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둔 1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지하철 홍제역에 민주당의 주민투표 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한나라당이 차량을 이용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 손학규 "MB노믹스 폐기가 공생발전"

##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 노믹스 폐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추구한다면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토목경제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나라와 가계를 빛다미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에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를 철폐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본 교

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독도를 돌려주고 일본이 보여주는 망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90조원이 넘는 부자 감세와 30조원이 넘는 토목공사로 재정건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귀남 前 법무 한나라서 '손짓'

## 사무실 열고 활동 재개

지난 10일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귀남(60) 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개인사무실을 열고 퇴임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와 여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법조타운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곧 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서초동 사무실에 출

근하면서 그동안 바쁜 업무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지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사무실 개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장흥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몇 안 되는 호남 출신 인사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한나라당은 그의 영입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홍준표, 투표 참관인에 110만원 지급

## 정당법 위반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7·4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110만원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자산과 후원회 기부금을 합해 총 1억1178만원으로 가장 적은 선거 자금을 썼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이에 해당 선관위가 사전에 허용한 사안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민주 "정동영 백주테러 처벌해야"

## 경찰, 뒤늦게 수사 착수

민주당은 16일 전날 정동영 최고위원이 청계광장 집회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보수단체를 비호하는 한 이들의 중독은 계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과 공생을 외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영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단체의 회원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백주에 폭력과 테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집단이다"며 "위법한 행동을 해도 경찰이 이를과 나이 주조조차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용섭 대변인은 "경찰은 지켜보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

에 대한 대낮의 폭력, 그것도 야권 대선후보를 저냥고 국회의원 신분인 정 최고위원에 대한 백주의 테러를 방조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 의원을 폭행한 보수단체 회원 박모(62)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정 의원 측에서 수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혀와 박씨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고 다음주 중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장에서 정 의원을 머리칼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최초! **음성채팅의 신기원**

# 무료 음성커뮤니티

어디서나 24시간 100% 직접 통화됩니다. (직접확인하세요!)

진심입니다! 그동안 비싼 090 전화요금이나 고액의 월회기비용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번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0원** 확인가능비 **0원**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 1688-5425

남·여 공통사용

매너만남방 10번 | 여행정보방 12번 | 음성 소셜방 07번  
보급보급방 01번 | 연인만남방 03번 | 1:1 대화방 15번

14년 전통 하트본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바쁘게만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107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주명리학: 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가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만?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관상학 고급	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사주명리고급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속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말일까지: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론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수, 상대편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까지 실습 위주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실관 4층)
- 등록방법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